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조아미* · 선택수**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함에 있어 실증적 분석결과와 논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종단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10)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에 기반하여 활동 참여수준의 변화를 유형별로 추정하고, 연도별로 수집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관심변인과 유형 집단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활동의 참여 수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3개 유형의 변화집단 중 소수(전체의 3.6%) 이기는 하지만 초기부터 청소년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집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청소년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및 안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활동 참여수준, 청소년활동 참여유형,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 성장혼합모형

* 명지대학교 교수

** 명지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shin16@mju.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각 분야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인지적 발달에만 치중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및 사회적 발달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활동¹⁾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발적이고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실천적인 활동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문성호·문호영, 2009).

청소년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정서적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활동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우선 자아개념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자아개념에는 자아존중감(김윤나·박옥식, 2009; 박재숙, 2010; 정준교, 2005; 허정철, 2004), 자기효능감(김소희·권일남, 2008; 임영식 외, 2010), 자아정체감(손의숙, 1998), 자기개념(Kirkcaldy et al., 2002)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회성(김현주·정영란, 2008; 진은설·임영식, 2009)이나 친구관계(문성호·문호영, 2009)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외에서 연구된 경향이 있고(Ussher et al., 2007; Steptoe & Butler, 1996), 만족도에 대해서는 생활만족도(김윤나·박옥식, 2009; 임근욱, 2007), 삶의 만족도(정준교, 2005), 학교생활만족도(문성호·문호영, 2009)와 같이 다양한 만족도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청소년활동과 스트레스(김소희·권일남, 2008; 진은설·임영식, 2009; 김윤나·박옥식, 2009; 문성호·문호영, 2009), 우울(Denault et al., 2009; Guest & McRee, 2009), 음주(Denault et al., 2009), 비행(김희화, 2004; Guest & McRee, 2009; Kirkcaldy et al., 2002)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활동과 자신감(진은설·임영식, 2009), 성취감, 학교적응(박병국, 2004), 진로(송병국·박정배, 2005; 허성호·정태연,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다.

2010)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청소년활동의 효과가 다른 교육적 활동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는 횡단자료에 근거한 단기적인 분석에만 주로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 청소년패널과 같은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종단연구는 교육, 사회, 심리 분야에서 프로그램 및 정책의 효과와 정서발달 관련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다양한 청소년관련 분야, 즉 가출(홍세희 외, 2010), 인터넷 일탈(조윤주, 2010; 이숙정, 2010), 학교 부적응(황성혜, 2010), 비행(이상균, 2009) 등에 대한 잠재계층분석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청소년활동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분석을 이용할 경우 청소년활동 경향을 계층별로 유형화하고 각 계층별 차이를 연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집단별 활동참여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맞춤형 청소년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계층별 활동 참여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청소년활동 연구 주제를 수립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관련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1) 청소년기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2)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참여 수준의 유형을 분류하고, (3) 잠재계층과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청소년 활동참여 수준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변화 유형에 있어 잠재계층은 몇 개이며 각 잠재계층의 변화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변화에 있어서 잠재계층을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개별 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서적 특성 즉, 활동참여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비행,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활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정체감 등의 자아관련 변인들과 더불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연구결과도 청소년활동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윤나·박옥식, 2009; 박재숙, 2010; 변상해 외, 2009; 정준교, 2005; 장승옥·한선혁, 2004). 박재숙(2010)은 2천여 명의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수련활동 및 자원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에 대해 종단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은, 2009). 자원봉사를 포함한 청소년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기 때문이다. 자아존중감은 경험, 특히 무엇인가를 완수했다거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거나 하는 경험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데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 이성은(2009)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험 이 자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와 관계가 있는 반면(김소희·권일남, 2008; 진은설·임영식, 2009; 김윤나·박옥식, 2009; 문성호·문호영, 2009), 청소년활동을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는 경우도 있다(김영란·송병국, 2007).

김영란과 송병국(2007)은 청소년의 주말 활동 프로그램 요구 분석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주말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가 청소년활동 참여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활동이 스트레스 해소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진은설과 임영식(2009)은 청소년활동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들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은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자유로움, 재미, 새로운 경험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된 경향이 있다(김희화, 2004; Farineau & McWey, 2011; Guest & McRee, 2009; Mahoney et al., 2001; Wong, 2005). 이 분야의 연구는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해서 청소년활동 참여와 같은 사회적 유대가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활동이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Farineau & McWey, 2011; Mahoney et al., 2001), 그 반대로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다(Schmidt, 2003). 한편 Wong(2005)은 단순히 청소년활동 참여가 아니라 활동내용에 따라 비행에 대한 영향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했다. 학교나 가족과 관련된 청소년활동은 비행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친구와 어울리기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비행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이와 유사한 분야를 다룬 연구는 수행되고 있는 편이나 직접적으로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적으나 심리적 안녕감(Steptoe & Butler, 1996; Ussher et al., 2007)이나 생활만족도(김윤나 · 박옥식, 2009; 임근욱, 2007), 학교생활만족도(문성호 · 문호영, 2009)를 다룬 연구는 존재한다.

김현주와 정영란(2008)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사회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박병국(2004)이 청소년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정준교(2005)가 청소년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를 연구하기는 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관심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관심 맥락변인과 청소년활동 참여수준 유형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수준 유형별로 관심변인의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참여수준 유형과 관심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III. 연구 방법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10) 자료를 이용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인지/정의적 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참여 및 비행 수준 등 청소년 관련변인을 연도별로 함께 수집하여 다양한 청소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종단연구의 분석자료와 변인, 연구설계, 그리고 분석기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석 자료와 변인

한국청소년패널 자료의 관측 시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5개년도 자료와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의 6개년도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활동 참여설문이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대상 자료에만 있어 후자의 자료를 이용했다. 더불어 대학교 입학 이후에 청소년이 접하게 되는 환경과 정서적 특성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고,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으로 나뉘는 단계를 고려하여 대학교 자료를 제외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5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총 표본의 수는 3,449개이나 특정 년도의 설문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즉 모든 설문의 자료가 결측인 경우를 제외하여 2,713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이용했다.

본 중단연구의 종속변인은 청소년활동의 참여여부이며 총 6개(신체활동, 정서함양 활동, 자연체험활동, 예절수양활동, 사회봉사 활동, 그리고 전통문화활동)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1로 코딩이 되어 있어 6개 활동에 모두 참여할 경우 6이라는 수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각 연도마다 응답자는 청소년활동 수준에 대하여 0(청소년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서부터 6이라는 숫자를 부여받게 되며 이는 서열유목변인(ordered categorical variable)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청소년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6에 가까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변화분석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변인분석도 실시했는데 앞에서 제시한 문헌과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관심변인을 선정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학생의 성별 변인(time-invariant covariate) 이외 나머지 변인(학교적응, 친구관계, 비행정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은 시간 가변적인 변인(time-variant covariate)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청소년의 정서 및 학교관련 특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변하기 보다는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시간 가변 변인의 경우 각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분석에서 신뢰도는 대부분 .60이상이었으며 각 구인별 요인분석에서도 일차원성이 검증되어 학년별 구인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1> 청소년활동수준

	명(%)				
	중2	중3	고1	고2	고3
수준=0	717(26.4)	1324(48.8)	1348(49.7)	1680(61.9)	2120(78.1)
수준=1	824(30.4)	671(24.7)	735(27.1)	682(25.1)	419(15.4)
수준=2	561(20.7)	316(11.6)	314(11.6)	205(7.6)	98(3.6)
수준=3	310(11.4)	177(6.5)	129(4.8)	75(2.8)	48(1.8)
수준=4	159(5.9)	86(3.2)	81(3.0)	33(1.2)	12(0.4)
수준=5	89(3.3)	53(2.0)	40(1.5)	11(0.4)	9(0.3)
수준=6	53(2.0)	86(3.2)	66(2.4)	27(1.0)	7(0.3)

<표 2> 청소년활동수준 관심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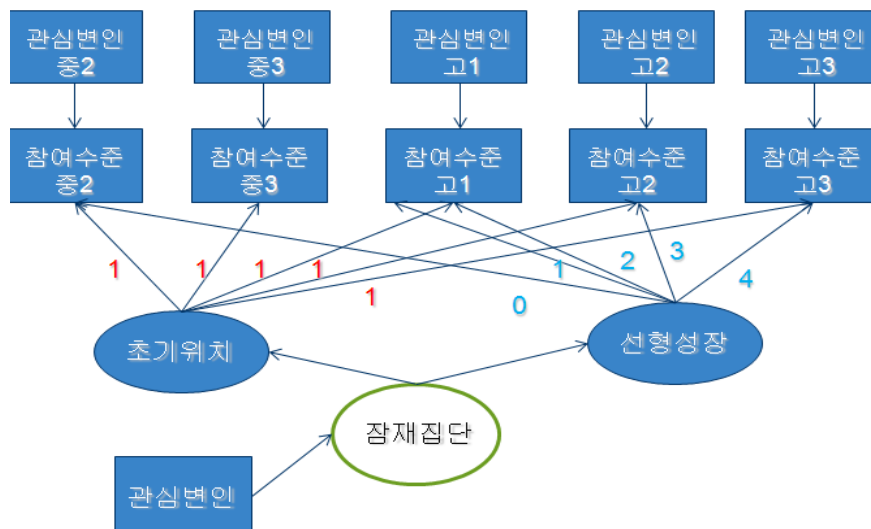
	1-5차년도 성별									
	남자(1,366명; 50.4%) 여자(1,347명; 49.6%)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	알파	평균	알파	평균	알파	평균	알파	평균	알파
학교적응	1.74 (.62)	.70	1.69 (.63)	.74	1.69 (.63)	.73	1.74 (.65)	.76	1.59 (.66)	.80
친구관계	4.05 (.66)	.75	4.16 (.67)	.82	4.24 (.63)	.82	4.23 (.63)	.81	4.27 (.62)	.82
비행정도	1.14 (1.60)		0.75 (1.42)		0.73 (1.27)		0.80 (1.16)		0.90 (1.14)	
자아 존중감	3.17 (.70)	.79	3.29 (.70)	.77	3.35 (.67)	.78	3.37 (.68)	.78	3.47 (.67)	.79
부모 스트레스	2.82 (.92)	.87	2.74 (.90)	.74	2.70 (.82)	.86	2.66 (.82)	.85	2.58 (.85)	.86
학교 스트레스	3.14 (.85)	.77	3.00 (.85)	.88	3.19 (.86)	.84	3.25 (.88)	.84	2.97 (.90)	.83
친구 스트레스	2.10 (.84)	.83	2.16 (.85)	.82	2.08 (.80)	.85	2.05 (.79)	.85	1.93 (.79)	.86
외모 스트레스	2.58 (.85)	.82	2.65 (.85)	.87	2.60 (.80)	.83	2.58 (.82)	.84	2.53 (.84)	.85
삶만족도	3.47 (.87)		3.49 (.79)		3.44 (.77)		3.40 (.79)		3.48 (.78)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알파는 Cronbach alpha를 의미함

2. 연구설계와 분석 기법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에 기초하여 모집단 수준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의 변화를 우선 추정하고, 나아가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 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집단 내 서로 다른 변화의 특징을 지닌 하위 잠재성장계층을 추적하였다. 잠재계층(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종단연구에 접목한 GMM은 다중 그룹성장모형(multiple group growth modeling; MGGM)과 유한혼합모형(finite mixture modeling)을 기반으로 발전한 모형분석기법이다. GMM에서는 각 계층별로 서로 다른

성장요인 모수를 추정할 뿐 아니라 성장모수 간의 관계도 집단별로 달리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집단을 나타내는 관측변인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개별 관측값이 집단에 속할 확률에 근거하여 집단을 구분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기술적 해설은 Muthén과 Asparouhov(2007), 신택수(2010)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분석을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²⁾.



[그림 1]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 분석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수준의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에 기초하여 초기위치와 변화(선형성장)의 두 잠재요인(latent factors)으로 모형화 하였다. 나아가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성장변화 뿐 아니라 이질적인 변화경향을 나타내는 잠재하위집단을 추정하고, 이들 집단과 관심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활동 참여수준 변화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했다.

성장모수의 추정에 있어서 종속변인이 서열유목화된 불연속변인이기 때문에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stic model), 특히 순서 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을

2) [그림 1]은 선형변화모형에 근거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모형의 결과도 제시하고 두 모형 간의 비교를 통하여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했다. 각 수준별 변화모형은 해당 수준에서의 역치(threshold)와 초기위치, 그리고 성장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로짓을 이용하여 활동 참여 확률을 예측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해설과 공식은 Gelman과 Hill(2007)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Mplus(version 6.1, 2010) 프로그램과 최대우도 추정기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분석하였으며 성장모수와 잠재집단의 수를 추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의 변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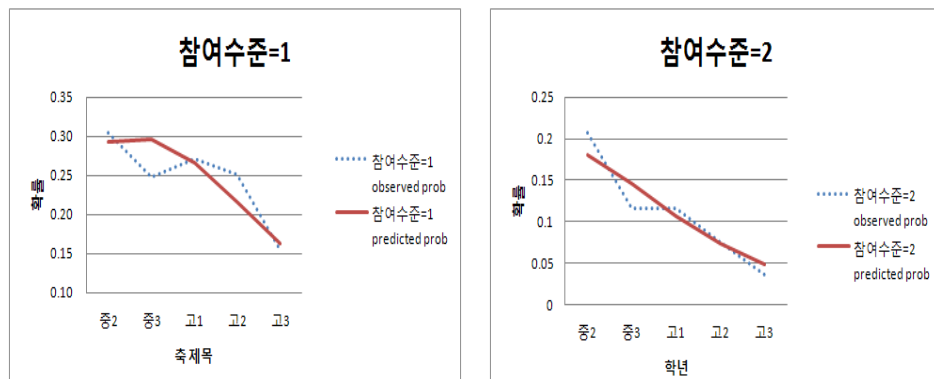
우선, 어떠한 형태의 성장 모형이 전체 집단 변화를 잘 설명하는지 검증을 하였으며 이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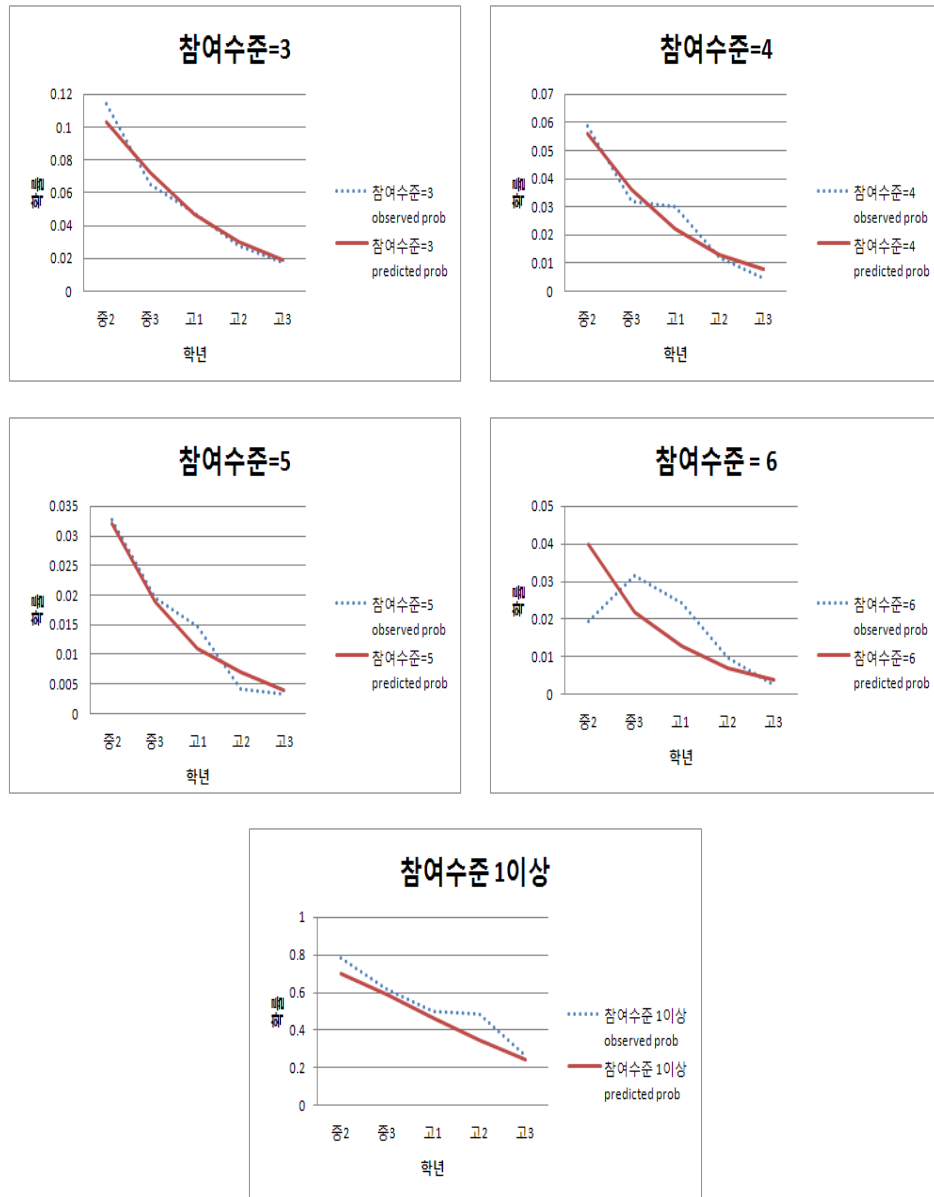
<표 3> 선형과 비선형 성장모형 분석 결과

	선형모형	비선형모형
평균성장		
β_0	.00	.00
β_1	-.59***	-.56***
β_2	-	-.001
공분산		
ψ_{00}	.85***	.60***
ψ_{11}	.23**	.21***
ψ_{22}	-	.01
ψ_{01}	-.04	.26***
ψ_{02}	-	.02
ψ_{12}	-	.04
모형적합도		
로그우도 카이제곱	2627.05	2656.54
자유도	16758	16762
p값	1.00	1.00
BIC	33460.73	33439.51
AIC	33401.67	33356.83

*** p < .001, ** p < .01, * p < .05

본 연구와 같이 서열유목화된 변인을 사용할 경우 카이제곱 모형적합도는 각 조건에서 예측된 빈도와 관측된 빈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측정시점이 증가하거나 표본의 수가 증가할 경우 빈 셀 또한 증가하여 카이제곱검증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위에서도 보듯이 카이제곱 검증의 자유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로그우도(-2 log-likelihood)를 바탕으로 한 카이제곱 값이 피어슨 카이제곱 결과보다 우수하지만, 근본적으로 본 연구의 경우 총 5개의 측정시점과 2,000개 이상의 표본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카이제곱에 기초한 모형적합도 검증방법은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Hosmer et al., 1997).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 IC) 계열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비선형모형의 값들이 선형모형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선형모형의 경우 비선형 모수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공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 모형으로 선형모형을 선택하였다. Mplus에서는 유목변인 분석 시 초기 위치값이 0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해당 결과에 기초했을 때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적으로 약 -0.59 오즈비(odd ratio)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청소년활동참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초기($\psi_{00} = .85$)와 성장($\psi_{11} = .23$)에 있어 개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에서 제시된 모수를 이용하여 얻은 예측된 수준별 활동참여 확률(모형에 의거하여 얻은 예측 확률)을 관측된 참여확률(<표 1> 참조)과 같이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수준별 청소년활동 참여의 변화

각 수준별 활동참여의 관측된 확률(점선)과 예측된 확률(실선)을 살펴보았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그림은 연도별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한번 이상 있는 모든 수준의 경우를 더한 참여 확률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 청소년활동 참여 변화의 유형 분석

다음으로 GMM에 기초하여 잠재하위 계층의 수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성장혼합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계층수(k)	모형적합도 검증		
	k=2	k=3	k=4
BIC	33524.45	33479.95	33474.96
AIC	33465.39	33403.17	33376.47
	k=1 Vs k=2	k=2 Vs k=3	k=3 Vs k=4
LMR	439.02***	65.46***	34.04
BLRT	457.53***	68.22***	35.1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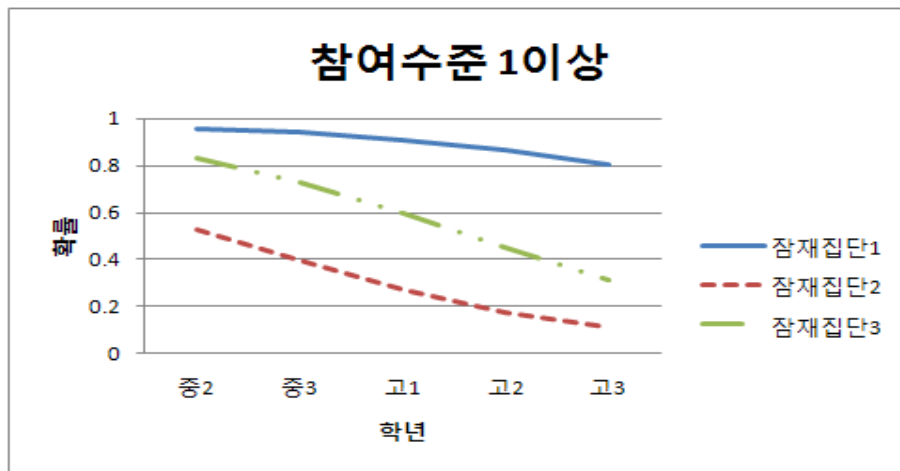
BIC와 AIC는 잠재하위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의 수가 3일 경우와 4일 경우 BIC의 차이가 약 5 정도로 매우 작은데 Raftery(1995)는 모형 간 BIC의 차이가 6 미만일 때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LMR과 BLRT의 결과에서도 로그우도 차이검증 결과 집단 3개일 경우와 4개일 경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적의 잠재계층 수는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하위 성장집단이 3개일 때 유형별 초기위치와 변화 모수 추정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잠재계층별 평균 성장요인 모수 추정치

집단모수	집단 1 (n1=98, 3.6%)	집단 2 (n2=1,175, 43.3%)	집단 3 (n3=1,440, 53.1%)
초기위치	1.63 (.32)	-1.48 (.11)	.00
변화	-.45 (.11)	-.55 (.04)	-.60 (.0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위에서 보듯이 집단 1의 경우 초기위치가 다른 집단보다 높으며 변화에 있어서도 감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집단 1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초기시점(중2)부터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의 감소 또한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의 3.6%(98명)만이 해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은 매우 소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집단 2의 경우는 초기위치가 상대적으로 두 집단보다 작아 초기부터 청소년활동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즉, 참여수준이 1 이상인 모든 경우의 예측된 참여확률 변화를 잠재계층별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잠재집단별 참여수준의 변화

3. 청소년활동 참여 유형의 특성 분석

GMM을 이용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다음으로 개별 잠재계층 유형과 참여활동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시간불변 공변인 성별과 하위 잠재집단과의 관계에서는 잠재집단 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집단 2의 성별에 대한 odd ratio가 $0.73(e^{0.73}=2.08)$ 이었다. 즉, 그룹 1보다 그룹 2에 여자가 소속될 확률이 약 2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가 그룹 2에 소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자가 그룹 1에 소속될 확률이 그룹 2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인의 효과를 집단별로 보면 다음 <표 6>, <표 7>, <표 8>³⁾과 같다. 분석은 각 학년에서 개별 하위집단의 참여수준을 종속변인으로 관심변인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측정 시점마다 순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 잠재집단 1과 관심변인 간의 관계

	중2	중3	고1	고2	고3
학교적응	-	-	0.85**	-	-
친구관계	1.26***	-	0.19**	2.39***	-
비행	-	-	-	-	-
자아존중감	0.91**	2.74***	1.20**	-	1.60***
부모스트레스	-	-0.94**	-1.56***	-1.18**	-
학교스트레스	-	-1.19**	-	-	-
친구스트레스	-	-	-	-1.68***	-1.58***
외모스트레스	-	-	-	-	-
삶만족도	0.54*	0.96**	0.65**	1.39***	0.82***

*** p < .001, ** p < .01, * p < .05

초기부터 청소년활동참여에 적극적이고 참여의 감소도 천천히 일어나는 집단 1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이 높았고, 친구관계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도 활동참여 정도가 높았다. 반면, 부모와 학교 그리고 친구들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낮은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으로 귀결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외 고1에서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활동 참여수준이 높았고, 비행정도와 외모스트레스는 활동 참여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표 6>, <표 7>과 <표 8>에서 관심변인과 참여수준과의 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계수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음.

<표 7> 잠재집단 2와 관심변인 간의 관계

	중2	중3	고1	고2	고3
학교적응	1.24***	-	-	-	-
친구관계	0.98**	-	-	1.06*	-
비행	-	-	-	-1.01*	-
자아존중감	-	-	1.83***	1.34**	-
부모스트레스	-0.61**	-	-1.35***	-1.42**	-
학교스트레스	-	-	-	-	-
친구스트레스	-	-	-	-	-
외모스트레스	-	-	-	-	-
삶만족도	-	1.17***	-	-	-

*** p < .001, ** p < .01, * p < .05

집단 2의 경우 잠재집단 1보다 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수가 확연히 적고, 연도별 결과를 바탕으로 일관적인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부모스트레스가 활동참여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집단 1과 비슷했고, 자아존중감도 두 개 년도(고1과 고2)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친구관계는 참여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행은 낮은 활동참여 수준과 관계가 있었다.

<표 8> 잠재집단 3과 관심변인 간의 관계

	중2	중3	고1	고2	고3
학교적응	-0.25*	-0.34***	-	-	-
친구관계	0.65***	-	-	-	-
비행	-	-	-	-	-
자아존중감	0.31**	2.74***		0.35***	
부모스트레스	-	-0.13*	-0.28***	-	-
학교스트레스	-	-	-	-	-
친구스트레스	-	-	-	-	-
외모스트레스	-	-	-	-	-
삶만족도	1.13**	0.12*	0.26***	-	0.17*

*** p < .001, ** p < .01, * p < .05

집단 1, 2와 비교하여 집단 3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캠프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집단 1과 같이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 또한 높다는 결과를 얻었고, 부모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집단 1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친구 관계는 청소년활동 참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집단 1의 경우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가장 많았으며 각 학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적극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과 참여유형 간의 관계는 집단 3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학생의 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인의 경우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많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1) 청소년기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2) 청소년활동 잠재계층을 파악하고, (3) 잠재계층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비행,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과 참여수준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변화 유형, 잠재계층분석, 그리고 잠재계층 형성요인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는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청소년이 26.4%였던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78.1%까지 증가한 것이라든가, 6개 분야의 청소년활동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0.3-3.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역량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역량개발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3개의 잠재성장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집단은 집단 1로 98명(3.6%)의 극소수로 구성된 집단이나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처음부터 비교적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참여수준의 저하가 적은 편이었다. 집단 1로부터는 두 가지의 시사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똑같은 현실에서도 청소년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감소폭도 적은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면 효과적인 가능성이 많다. 다른 하나는 집단 1에 여학생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든지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으로 청소년활동을 진행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각 하위 잠재성장집단에 따라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과 관심변인(학교적응,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비행)의 관계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집단 1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가 친구스트레스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나, 집단 2와 집단 3에서는 그와 같은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 2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가 비행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두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활동은 단지 집단 2에서만 비행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뿐이고 다른 집단에서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이 비행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는 조사대상에 집단 2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반면, 청소년활동이 비행의 감소와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의 경우, 조사대상이 집단 2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경우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단기적으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려하되 유형별 청소년활동 참여수준의 변화(잠재계층 성장집단)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활동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면, 스트레스의 유형 중 외모스트레스는 청소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스트레스는 학교나 친구 스트레스

보다 청소년활동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 학교, 친구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청소년활동 참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스트레스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다른 관련변인에 비해 청소년활동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집단 1과 집단 3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활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는 경향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나 자아존중감 같은 정서 특성 변인이 높을수록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로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특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종단연구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참여와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및 안정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활동참여 수준의 변화와 관심변인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연구에서 사용된 종단연구 자료가 실험 또는 준 실험 설계에 근거하여 수집된 자료가 아닌 관찰 자료이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근본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형화의 과정에 있어 관심변인이 독립변인으로 참여변화가 종속변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관심변인이 참여수준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만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활동에 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소희 · 권일남(2008). 청소년수련활동 체험이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 학회지, 제5권 제3호, pp. 155-176.
- 김영란 · 송병국(2007). 청소년의 주말 활동 프로그램 요구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4권 제1호, pp. 137-159.
- 김윤나 · 박옥식(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 79-99.
- 김현주 · 정영란(2008). 청소년지도의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제6권 제4호, pp. 17-30
- 김희화(2004).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 75-94.
- 문성호 · 문호영(2009).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 제2호, pp. 85-111.
- 박병국(2004).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1권, pp. 633-644.
- 박재숙(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4호, pp. 157-182.
- 변상해 · 정의정 · 오수생 · 신종수(2009). 미술 활동이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pp. 217, 227.
- 손의숙(1998).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국 · 박정배(2005). 청소년의 활동경험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분석. 제2회 한국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신태수(2010). 중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제23권 제3호, pp. 641-664.
- 이상균(2009).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분석.

- 한국가족복지학, 제27권, pp. 243-266.
- 이성은(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 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 313-335.
- 이숙정(2010).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에 관한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 165-187.
- 임근욱(2007).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요도와 생활만족도 연구-대전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1권 제4호, pp. 179-194.
- 임영식 · 문성호 · 정경은(2010).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0호, pp. 253-276.
- 장승욱 · 한선혁(2004). 청소년 문화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칠곡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4호, pp. 185-207.
- 정준교(2005).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아르바이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가생활만족도, 삶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윤주(2010). 청소년의 인터넷일탈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6호, pp. 171-195.
- 진은설 · 임영식(2009). 청소년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 제4호, pp. 211-23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성호 · 정태연(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 143-164.
- 허정철(2005).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1호, pp. 19-40.
- 홍세희 · 노언경 · 박민선(2010). 청소년의 가출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생태체계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2호, pp. 181-201.
- 황성혜(2010).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발달계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4호, pp. 211-239.
- Denault, A., Poulin, F. & Pedersen, S.(2009). Intensity of participation in

- organized youth activities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adjustmen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13 No. 2, pp. 74-87.
- Farineau, H. M. & McWey, L. M.(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s in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23, pp. 963-968.
- Guest, A. M. & McRee, N.(2009). A school-level analysis of adolescent extracurricular activity, delinquency, and depression: The importance of situational contex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 38, pp. 51-62.
- Hosmer, D. W., Hosmer, T., Le Sessie, S., & Lemeshow S.(1997). A comparison of goodness-of-fit tests for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Statistics in Medicine*, Vol. 16 No. 9, pp. 965-980.
- Kirkcaldy, B. D., Shephard, R. J., & Siefen, R. G.(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self-image and problem behaviour among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37, pp. 544-550.
- Mahoney, J. L., Stattin, H., & Magnusson, D.(2001). Youth recreation centre participation and criminal offending: A 20-year longitudinal study of Swedish boy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5 No. 6, pp. 509-520.
- Muthén B., & Asparouhov T.(2007).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with non-Gaussian random effects. In Fitzmaurice, G., Davidian, M., Verbeke, G. & Molenberghs, G. (Eds.), *Advances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Chapman & Hall/CRC Press.
- Muthén B., & Muthén L.(2010). *Mplus user's guide*(Version 6.1).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Raftery, A.(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25, pp. 111-163.

- Schmidt, J.(2003). Correlates of reduced misconduct among adolescents facing advers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2, pp. 439-452.
- Steptoe, A. & Butler, A.(1996). Sports particip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in adolescents. *Lancet*, Vol. 347, pp. 1789-1793.
- Ussher, M. H., Owen, C. G., Cook, D. G., & Whincup, P. H.(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2, pp. 851-856.
- Wong, S. K.(2005). The effects of adolescent activities on delinquency: A differential involvement approac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4 No. 4, pp. 321-333.

ABSTRACT

The Participation Types and Levels of Youth Activity, and the Analysis of Characters Based on Growth Mixture Modeling

Cho, A-Mi* · Shin, Tack-Soo*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ortance of youth programs and active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longitudinal study categorized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levels of youth activities and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wth type. Making use of data taken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tudy(KYPS), an appropriate number of latent classes in terms of change were detect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and growth mixtur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classes and the covariates of change were then examin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verall participation levels decreased as time went by. One of 3 latent classes reported high participation levels in both the initial level and changed level, while the probability of being within this group was relatively small(3.6%). In the time-varying covariate analysis, person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active participation across the school years.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clearly had an influence on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studied.

Key Words : participation level of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type of youth activity, longitudinal study, latent growth modeling, growth mixture modeling

투고일 : 3월 6일, 심사일 : 5월 4일, 심사완료일 : 5월 11일

* Myongji University